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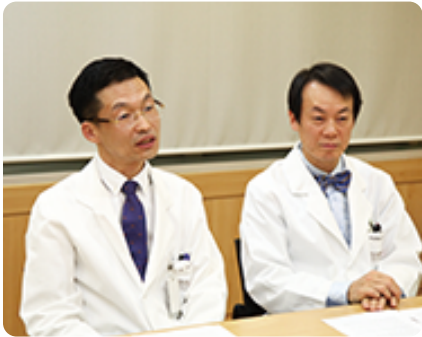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위암 적정성평가 2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채석래)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의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 (내시경절제술/위절제술)을 시행한 221개 의료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환자관련 진료기록을 평가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전문 인력 구성여부 ▲절제술 전 병리조직 검사 실시율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률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률 ▲위절제술 후 수술기록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등 19개 항목에서 전체평균 95.77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로 위암 진료에 있어 전문 인력 현황과 초기 진단 및 치료 체계가 질적으로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공동연구:
‘시진만으로 사상체질 진단이 가능한가’
SCI 논문과 얼굴 분석을 통한 체질진단시스템에 대한 국내특허등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성형외과 이승철 교수와 일산한방병원 사상체질 의학과 배효상 교수, 통계학과 이영섭 교수는 ‘사상체질 전문가의 체질 진단에서의 시진 또는 망진 상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얼굴 분석 시스템’이란 제목의 공동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3월 6일 특허 등록했다. 이번 특허는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참조 <http://bapa.co.kr/Diagnostic/>)에 관한 것으로 체질을 한 가지 체질로 확정하지 않고, 얼굴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체질적 특성을 진단하는 빅 데이터 및 그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이 발전되면 한의사가 얼굴 사진을 보고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얼굴에 대한 주관적 편견과 오진을 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에 대해 이승철 교수와 배효상 교수는 국내 의료계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대승적 협력과 환자 중심 진료 및 그 과학적 검증을 위한 첫 발걸음의 시작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의사와 한의사들은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 유지와 존엄을 기준으로 상호 협력하고, 열린 마음과 학자적 양심 및 의료 윤리로,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고 전했으며,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의료계의 상생, 환자 안전 및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모두 함께 공동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대한 임상신경생리학회 논문 우수 연제 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전공의 박수현)는 시신경염 진단 시 사용하는 시각유발전위의 대조도 변화를 이용한 연구(Low-contrast stimulations increase sensitivity of visual evoked potentials in optic neuritis)를 주제로 대한 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수상 된 이번 논문은 분야별로 제출된 초록 중 심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논문상으로 선정되어 시상하게 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각 유발 전위 검사에서 대조 도를 변화시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신경염 및 다발성 경화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경과는 지난해 김남희 교수가 대한 임상신경생리학회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은 바 있다.

고객의 소리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몸과 마음으로 인해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작은 배려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병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각종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 중이신 홍관우 선생님은 바쁘고 정신없는 환자들 틈에서도 친절하고 신속한 처치를 해주셔서 보호자로서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홍 선생님을 통해 권위적으로만 느껴졌던 의료인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의료인이 있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늘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고맙고 감사합니다.

알리미

한방 방문 무료진료 일시 | 3월 30일(목) 14시~16시 장소 | 일산서구보건소

